

[사회]

■ '빛고를 독서마라톤' 특별상 원종이네 가족

세살배기와 함께 온가족 책임기

“석달간 ‘42,204쪽 행복’ 쌓였죠”

“땀 흘려 완주를 이뤄내 가족들의 성취감이 대단해요. 상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살배기 막내 아들 때문에 큰 상을 받은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광주일보가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빛고를독서마라톤대회' 풀코스 가족부문에서 특별상을 받은 '원종이네'의 엄마 조혜진(36·광주시 서구 염주동)씨는 수상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매일 도서관으로 출근

조씨는 남편 서재석(41)씨를 비롯, 두 아들 원종(9·화정남초교 2년)·예종(3)이와 대회 기간 동안 4만2천204쪽의 책을 읽었다. 책 1쪽을 1m로 산정했을 때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넘었으니 완주에 성공한 셈이다.

“대회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책을 읽었어요. 네 가족이 석달동안 4만 쪽 이상을 읽는다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승진 시험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서재석씨)

엄마 조씨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원종이는 원래 책을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독서광 수준이다. 그러나 말 배우지도 얼마 안된 예종이는 무슨 책을 얼마나 읽을 수 있었을까.

조씨는 “예종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느낌을 물어본 다음 그것을 일지에 적었다”며 “내 독서에 예종이 것까지 해야 해서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회 기간동안 조씨는 매일 인근 교회와 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출근’했다. 가족수만큼 대출증을 발급받아 하루 10~12권을 대출한 것이다.

“다음 대회도 꼭 완주”

“원종이는 학교갈 때 두권을 챙겨가서 쉬는 시간 교실, 화장가는 차안 등에서 읽고, 집에서 와서 자기 전까지 또 책을 펼쳤죠. 워낙 책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즐거워 하던데요.”(조혜진씨)

원종이는 “삼국지를 읽을 때가 가장 재밌었다”며 “책을 읽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다”고 말했다. ‘원종이

네’의 독서마라톤 소식을 전해 듣고, “다들 대회 때는 우리 가족도 할 것”이라고 나서는 지인들도 많았다.

조씨는 “에 키우면서 독서를 소홀히 했었는데, 대회를 계기로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일지까지 쓰니까 더 좋았던 것 같다”며 “다음 대회에도 꼭 참가해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리는 제1회 독서마라톤 시상식에서는 가족·단체·개인 등 부문별 입상자 78명과 특별상 7팀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과 배지, 트로피 등이 주어진다. 올해 독서마라톤대회는 4~6월과 9~12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독서마라톤이란=광주일보가 책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벌이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독서에 접목한 것. 참가자가 읽은 책 1쪽을 1m로 환산해 부문별 완주 여부로 입상자를 가린다. 이번 1회 대회에는 8천718명(학생 7천807명·일반 911명)이 참가해 1천547명(학생 1천305명·일반 242명)이 완주했으며, 지난해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동안 열렸다.



광주일보가 광주시교육청과 공동 주최한 '제1회 빛고를독서마라톤대회'에서 가족부문 풀코스 특별상을 받은 '원종이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 앞 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원종군, 서재석, 조혜진씨, 서예종군.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for Feb 15. Includes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locations and a table for the week's weather.

건조한 날씨 화재 '주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도 크게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14일까지 일어난 2월 중 화재는 모두 220건으로, 1월 한달동안 발생한 화재가 245건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광주지역 평균습도는 54.1%로 지난해 2월 평균습도 63%보다 훨씬 낮았다. 전남지역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인 여수·광양 지역은 지난 11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비롯, 읍들이 세차례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강수량도 현저히 줄었다. 14일 현재 2월 중 광주지역 강수량은 0.1mm에 그치는 등 비나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71.1mm)에 비해 무려 71mm가 줄어들었고, 평년(15.3mm)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신질환자도 위생사 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도 위생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경우에는 위생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국가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재난 매뉴얼' 만들어라

소방설비 규정 법제화 전담부서 설치 관리

허술한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국보 1호 '승려문' 화재로 고통 삼아 광주·전남지역의 목조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재의 경우 원형 보존 원칙 때문에 화재진압 대처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모두 325개의 국보 및 보물급 목조 문화재가 있지만, 이들 문화재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치구정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88조는 '문화재에 소방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명 사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조 문화재는 소화기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들은 관련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옥외소화전 설치 ▲방연재 처리 ▲보험가입 의무화 등 세부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보 및 보물 등을 보유한 사찰 등은 매년 두 차례 이상 관할 소방서와 가상 화재진압훈련을 하

하 대책은 뭘까 고 이를 토대로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비상사태 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CCTV와 적외선 감지기 등 첨단시설을 설치하고 공익근무요원 등을 상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부족한 예산 탓에만 떠밀려 지역 문화재는 지금도 화재 등의 재난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 국가지정 문화재 소화설비 예산은 모두 7억3천만원. 목조 문화재 325곳 중 12.5%인 40곳이 소화전 하나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예산지원을 위한 법 개정

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책 이외에도 문화재 관리 업무 분담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문화재의 경우 자치단체가 1차 관리를 맡고 문화재청이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책임감 부여를 위해 '전담 부서'가 설치돼야 한다.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문화재 지킴이로 활용하는 '1 문화재, 1 지킴이' 운동을 활성화하면서 문화재의 훼손을 막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재의 화재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철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정신질환 금주 5년새 35%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180만7천7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134만3천900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5% 증가한 것이다. 주요 질병별로 보면 치매환자는 2001년 3만1천158명에서 2006년 8만8천804명으로 185%, 정신발육 지체환자는 같은 기간 9천470명→1만7천4명으로 79.6%,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포함하는 정동성(기분)장애환자도 43만1천507명→63만8천115명으로 47.6% 증가했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는 2001년 4만1천385명에서 2006년 5만9천979명으로 44.9% 증가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협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협격을 예약합니다!! 전남고시약원 236-2467~8

건물 매각. 017-621-5793

바이오싱크케어. 알수거나 건조기나 비료기 등

공인중개사 전문약원. 제1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발 전국 수석 2명 대회 연패관